창극 '여울물 소리' 각색·연출 신선… 대중성 확보

광주시립창극단 35주년 기념작

황석영 원작 소설… 막바지 연습
내달 7~8일 예술의전당 대극장
혼란 속 구한말 배경 '희망' 주제

지난 16일 광주 북구 운암동 광주예술의전당 음악당 1층 대연습실에서 광주시립창극단 단원들이 다음 달 선보이는 창극 '여울물 소리' 리허설을 하고 있다.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차별성과 확장성을 내세운 창극이 무대 구현을 앞두고 단원들의 공연 준비가 한창이다. 지난 16일 오전 11시 광주 북구 광주예술의전당 음악당 1층 대연습실에서는 광주시립창극단 창단 35주년 기념작 '여울물 소리'의 리허설이 열렸다. 오는 11월 7~8일 광주 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선보이는 제61회 정기공연에 앞서 창극단의 단원과 악단, 연출가, 감독 모두 예열에 들어간 것이다.

피리와 대금·소금·해금·가야금, 타악을 필두로 한 국악의 힘 있는 울림이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에 의해 펴졌고 스트링,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신시사이저 등의 서양악기 선율을 합세해 흥을 더했다. 광주시립창극단 단원들은 이에 맞춰 그간 갈고닦은 열정의 호연을 선보였다.

'여울물 소리'는 황석영 작가의 동명 소설을 창극 대본으로 각색한 작품으로 구한말을 배경으로 한 창극을 제작하고 싶다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주인공 연옥이 어머니 구례댁과 함께 강경 객주를 운영하며 힘든 삶을 살아가다 이신통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다. 이신통은 갑오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기 위해 연옥을 떠난다. 이신통을 그리워한 연옥은 그의 흔적을 쫓아 찾아 나선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희망을 찾아간다는 내용을 담아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번 작은 기존과 다른 요법을 채택하는 등 대중성과 완성도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각색·작곡·연출을 맡은 황호준씨는 이날 연습 공연 후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당대의 역사적 서사와 함께, 실제 창극 안에서 음악을 어떻게 차용할지 많은 고민이 있었다. 원작 소설의 내용을 무대의 음악극으로 개작하는 과정에서 인물 간 내면의 이야기를 극대화했다"며 "무대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극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가기 위해 특정한 에피소드를 더 부각하는 등 새로 조립하고 시간의 집대성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여울물 소리는 예인들이 각각의 영역으로 분화되기 이전 모습을 창극에 담기 위해 '여향'의 개념을 끌어왔다. 여향은 잔향 끝에 맞이하는 침묵과 고요다. 극은 여향의 개념에 집중하고 이를 확장해 단순히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완성의 단계가 아닌 끊임없이 시작되는 어느 지점으로 관객들을 안내한다. 당대 소리꾼들의 삶과도 일맥상통하는 음의 잔상을 소리로써 서술한다.

광주시립창극단은 주요 등장인물인 이신통과 정연옥 역에 저연차 단원들을 내세워 세대교체도 단행한다. 1일차인 11월 7일 이신통 역은 정승기 상임단원, 정연혹 역은 이서희 상임단원이 맡아 연기한다. 2일차인 11월 8일 공연에는 박준현 비상임단원과 고혜수 비상임단원이 각각 이신통과 정연옥을 열연한다. 비상임단원의 경우 모두 올해 뽑힌 신인들이다.

정승기 단원은 "한 캐릭터를 연기하지만, 여러 인물과 감정이 투영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이서희 단원은 "시대의 민족성과 역사성이 이야기에 잘 녹아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고혜수 비상임단원은 "대사에 함축적 정서를 표현해 내기 힘들었다. 대사 안에 들어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작업과 공부가 필요했다"고 배역에 대한 소감은 전했다.

업계에서는 광주시립창극단의 이번 작품이 꾸준히 창극을 관람하러 오는 신규 충성 관람층을 확보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높다. 그간 쌓아온 창극 양식을 신선한 각색과 특화된 연출로 확장하고 대중성을 더했다는 이유다.

박승희 예술감독은 "이번 작품은 광주시립 창극단 창단 35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원작 소설 '여울물 소리'를 창극으로 써는 국내 최초로 선보는 작품이다"며 "광주시립창극단의 35년간 발자취와 성과물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제61회 정기공연 창극 '여울물 소리'는 12세 이상 관람가로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와 티켓링크(1588-7890)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글·사진=박찬 기자

제15회 광주비엔날레를 찾은 스타들

NCT WISH·한혜진 등 전시 관람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판소리, 모두의 울림'에 문화예술계 인사뿐만 아니라 스타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홍보대사인 NCT WISH 멤버들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을 찾아 전시된 작품을 하나하나 둘러보며 관심을 보였다. 멤버들은 각자 마음에 드는 작품의 사진을 찍거나 다양한 설치 작품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등 예술을 통한 휴식의 시간을 보냈다. 특히 소리로 표현되는 작품들을 유심히 듣고 들여다보며 작품의 의미를 되새기기도 했다.

모델 한혜진은 개인 유튜브 채널에 제15회 광주비엔날레 광주 여행을 콘셉트로 한 영상을 지난 3일 업로드했다. 영상은 업로드 하루 만에 조회수 36만 회를 기록했으며 현재 조회수는 74만 회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영상에서 전시장에 들어선 한혜진은 작품을 관찰하고 제목으로 작품 내용을 유추해보면서 숨은 의미를 찾기도 했으며, 독특한 시선과 다양한 관점으로 작품의 스토리를 읽어내는 색다른 해석이 재미를 안겨줬다.

또 노엘 W. 앤더슨의 작품 '원숭이가 나무를 더 높이 올라갈수록, 엉덩이는 더 많이 드러난다'를 관람하며 '명예를 좇을수록 내 치부가 드러난다'는 의미를 듣고 감탄했다. 도슨트의 설명을 듣고 난 뒤 제15회 광주비엔날레의 테마인 '인류세'와 '지구의 위기'에 대해 공감하기도 했다.

스타들 이외에 인플루언서도 올 가을 꼭 봐야할 전시로 광주비엔날레를 언급했다. 139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모델이자 인플루언서 박제니는 유튜브 채널 '제니파크'에서 MZ코스로 꼭 봐야 할 전시에 제15회 광주비엔날레를 소개했다.

한편, 9월 7일 개막한 제15회 광주비엔날레는 '판소리, 모두의 울림'이라는 타이틀로 인류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공간(판)과 소리(울림)에 대한 전시를 선보이고 있다. 전시는 용봉동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과 8곳의 양림동 전시장에서 12월 1일까지 계속된다. 도선인 기자

진일보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19일 전통문화관 너덜마당
'풍물세상 굿패마루' 초청

풍물세상 굿패마루가 오는 19일 오후 3시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너덜마당에서 올해 28번째 토요 상설공연으로 '마루x풍류'를 선보인다.

'풍물세상 굿패마루'는 전통을 기반으로 우리 삶의 희로애락을 원시적 본능의 소리인 풍물소리를 담아 축제의 공간을 만들어 가는 단체다.

이번 무대에서는 △봄(길놀이&비나리) △여름(사물놀이) △가을(북과 장구) △겨울(사물판굿 및 개인놀이) 등 사계절을 맞는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사물놀이의 장단과 우도설장구의 독특한 가락, 진도북놀이의 역동적인 춤사위를 직접 볼 수 있다.

또한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전통문화관에서는 토·토·전!(토요일, 토요일은 전통문화관에서 놀자!)을 슬로건으로 절기 관련 체험 및 연희·민속놀이, 한복 체험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마련해 시민들을 위한 놀이마당이 펼쳐질 예정이다.

전통문화관 모든 프로그램은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관람 가능하며, 토요일 전통문화관에서 체험과 공연 등을 모두 즐긴 후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면 다회용 타월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전통문화관 토요상설공연 다음 공연은 오는 26일에 진행되며, 2024 토요 상설공연의 마지막 무형유산 초청 무대로 광주전통불교영산회를 초청해 '영산재 시연회' 무대로 시련작법, 관음시식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박찬 기자

2024 북경창작스튜디오 참여자 모집

29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은 지역을 넘어서는 국제적 창작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2024 북경창작스튜디오' 참여자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

2010년 시작된 북경창작스튜디오는 지역작가를 중국 북경에 파견하며 한·중 미술 교류에 기여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광주문화예술 홍보를 위한 홍보관으로 임시 운영하다 2023년 말 잠정 철수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됨에 따라 광주시립미술관은 두 도시 간 예술교류 회복과 지속을 위해 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을 재개하고자 한다.

'2024 북경창작스튜디오' 모집인원은 작가 및 연구자(기획자) 2명(팀)이다. 선발된 인원들은 중국 북경 순의구에 위치한 거주공간과 오픈스튜디오, 결과발표회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받으며 광주시립미술관은 창작지원비를 제공한다.

지원대상자는 작가의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광주지역 출신이거나, 연고가 있는 자로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연구자(기획자)의 경우 지역 내외에서 활동하는 자로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김준기광주시립미술관 관장은 "창작환경의 글로벌 확장을 통해 지역예술가의 국제적 인지도 상승 및 광주예술의 새로운 흐름을 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지역예술가와 연구자(기획자)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접수는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미술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로 가능하다. 미술관은 1차 서류접수와 2차 프레젠테이션 진행 및 면접심사를 거쳐 돌아오는 11월 초 최종 선정작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립미술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찬 기자